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의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arital Adaptation of Wives whose Husbands have had Extramarital Affairs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강사 김병수
교수 정혜정*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Byungsu Kim
Professor : Hyejeong Chung

Abstract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wives and their husbands who have been involved in extramarital affairs.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ives' marital adaptation process and typology in the process of their husbands' affairs. The grounded theory provided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this research. The qualitative data were obtained from ten wives whose husbands have had extramarital affairs through in-depth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s and formed a conditional matrix. This research classified these wives' adaptation into four types such as Separated Independent, Rigid Resigned, Connected Acceptive, and Chaotic Attached types.

Key Words : marital adaptation process, extramarital affairs, grounded theory

I. 서론

혼외관계는 배우자와만 인정되고 있는 성적인 배타성과 독점성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 맺는 것이다. 혼외관계는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주며, 그 고통으로 가족체제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이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사법연감, 2006). 이는 혼외관계가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의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상담을 받은 여성들의 주된 호소내용은 가정폭력(32.9%)과 남편의 외도(19.2%)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7. 4. 14). 남편의 혼외관계가 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숙이(2003)의 연구에서 볼 때, 폭력 혹은 배우자의 혼외관계로

가정 내 갈등이 야기 될 뿐만 아니라 비록 구조적으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을 뿐이지 심리적 손상은 계속 되어 왔음이 추측된다.

한편, 한국 여성상담센터(1999)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편의 혼외관계를 알았을 때 아내들의 반응 중 결혼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아내가 164명(52%)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68명(21%)보다 2.4배가 많았고, 대응 방법도 이혼, 별거 요구, 간통죄 고소준비 등 적극적 대응(50.9%)도 했지만 침묵이나 가정을 지키려는 바람, 자책 등 수동적 대응(38%)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겨레, 2001. 11. 12). Charney와 Parness(1995)의 연구에서도 전문 치료자에게 접수된 배우자의 혼외관계 62건을 분석한 결과 34%가 이혼을 했지만, 43.5%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14.5%만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남편의 혼외관계는 늘어나지만 이혼이나 간통

* Corresponding author: Hyejeong Chung
Tel: 063) 270-3828, Fax: 063) 270-3839
E-mail: chunghj@chonbuk.ac.kr

죄 고소를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많고 혼외관계가 곧 결혼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또 이들 부부들이 관계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한 부부관계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동안 혼외관계의 연구는 문헌을 통한 고찰과 양적 분석에 의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혼외관계의 실태, 원인, 인식태도에 관련하여 조사 및 분석한 연구로 혼외관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남편의 혼외관계라는 하나의 가족위기 사건에, 아내들의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처과정을 담지 못했고, 지금까지 남편의 혼외관계가 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와 그 역동을 파악하지 못해왔음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남편과의 상호작용과 부부관계의 변화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아내입장에서 남편의 혼외관계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주관적 의미와 인식을 살펴보고, 아내의 적응과정과 그 결과 결혼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밝히는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남편의 혼외관계 이후 아내들의 경험 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혼생활을 적응했는가?'이고 그 실체를 구조화 과정을 거쳐 탐색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더불어 부부 상호작용 변화와 적응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범주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혼외관계 전·후 아내들은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둘째, 남편의 혼외관계 후 아내들은 결혼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가고 있는가?

셋째,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의 적응유형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남편의 혼외관계가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혼외관계는 상대 배우자에게 수치스러움, 자존감 하락,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충격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송명희(2003)는 배우자의 혼외관계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남자들은 사랑에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사랑에 훼손을 당했다 하더라도 삶 전체가 훼손당하지 않지만 여성은 사랑이 무너져 내리면 모든 생활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크다고 하였다. 김예숙(1995)도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내리고, 또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에 의해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성이 받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혼외관계로 아내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전숙이, 2003). 혼외관계 사례를 다룬 연구(문영숙·이정화, 1997; 송강희, 2007; 양유성, 2008; Lusterman, 2004)을 통해 남편의 혼외관계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아내는 우울증, 불안, 고립감, 배신감, 허탈감 등을 경험하였는데, 불안이 심해지면서 불면증이나 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연구자들은 남편의 혼외관계가 드러난 이후 아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을 연구하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을 다섯 단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양유성, 2002; 이영숙 등, 2000; 최연실, 2003; Edell, 1995; Elizabeth Kubler-Rose, 2000; McGinnis, 1981; Reibstein & Richards, 1992; Subotnik & Harris, 1993; Weiner & Starr, 1989).

그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부정의 단계'이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체면이나 사회적 이목으로 인한 두려움이 심리적인 고통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충격으로 놀라게 되고 충격반응이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이다.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통해서 격렬한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침체 및 우울의 단계'이다. 수치심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게 된다.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네 번째 단계는 관조의 단계이다.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비로소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혼외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자신의 결혼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 배우자, 결혼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평가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인정과 해결을 위한 '수용의 단계'이다. 먼저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벌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의 혼외관계가 드러난 이후 아내는 다양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혼외관계로 부부관계가 변화되었고 그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아내 개인의 입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남편과의 상호작용 변화와, 부부관계의 적응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 남편의 혼외관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Reibstein과 Richards(1992)는 혼외관계로 인한 결혼생활의 부정적인 변화 측면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는데, 부부는 혼외관계로 배우자에 대해 다른 기대와 욕구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간 부조화와 부적응이 더욱 심화되어 결혼생활에 위기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혼외관계는 부부관계를 공격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려 정서적 거리감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서적 거리감으로 소원한 관계가 형성되면, 심외감의 상실, 성생활의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부부관계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의 혼외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었고, 결혼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일지라도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어 부부간의 사소한 싸움에도 혼외관계의 사건이 되살아나고 갈등의 쟁점으로 재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혼외관계가 결혼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결혼생활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견해도 있다. Pittman(1989)은 혼외관계의 위기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발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혼외관계를 통해 결혼생활에서 남편,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혼외관계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외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대처행동에 따라 결혼생활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한 아내의 적응

가족 내의 어떤 변화들은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이것은 가족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가족 위기는 가족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McCubbin & Patterson, 1983). 적응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McCubbin과 Patterson(1983)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단기적인 반응으로서의 적응(adjustment)과

장기간에 걸친 가족체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또한 가족적응(family adaption)을 가족위기 후의 적응의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족체계가 개인이나 가족 같은 하나의 체계와 환경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내부의 기능들과 외부의 현실을 바꾸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남편의 혼외관계는 안정된 상태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아내에게 심리적 손상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어떤 경우는 잘 대처하고 적응해 가는 반면, 어떤 경우는 가족 붕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남편의 혼외관계로 인해 부부간 상호작용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이러한 상황과 스트레스의 적응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의 적응 요인을 Double ABCX 가족 스트레스 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ouble ABCX 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원의 축적에 대한 적응 수준(xX요인)은 스트레스원(aA요인) 그 자체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bB요인)과 전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가족의 지각, 혹은 평가(cC요인)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한 적응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과 혼외관계에 대하여 아내가 부여하는 의미와 대처자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처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1) 아내의 대처자원(bB 요인)

대처자원은 개인적 자원과 가족체계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되며 자원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의 대처와 극복은 용이해지는 반면 자원이 부족할수록 위기가 발생하기 쉽다.

개인적 자원으로는 지적능력, 문제해결기술,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뢰감, 감사하는 마음, 낙관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최규련, 2007). 이중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남편의 혼외관계에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신을 낮고 매력 없다고 자기 부정하는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남편의 혼외관계를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양유성, 2008).

가족체계의 자원은 가족원 상호지지, 가족 공통의 여가생활, 가족에 대한 긍지와 생활만족, 가족의 화합, 신념 등이 해당된다(최규련, 2007). 가족원의 자원 중 자녀는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에게 커다란 자원이 되었다. 최근 연구(김현주, 2002)에서도 이혼을 고려해 본 기혼자 중에서 이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큰 장벽이 '자녀의 장래' 때문이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비록 본인이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일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어려운 여건에서의 양육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원은 확대가족이나 친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사회단체 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받거나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얻는 것 등이 있다.

2) 혼외관계에 대한 아내의 인지와 평가(cC요인)

혼외관계에 대하여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대처자원에 대한 평가는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이자 위기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지향점으로서 적응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최규련, 2007).

인지와 평가는 혼외관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냐의 정의적인 측면으로 달라질 것이다. 여성과 남성을 보는 전통적 고정관념, 즉 여성은 순종적이고 의존적이며, 민감하고, 남성은 자극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남성의 성적 욕구는 선천적이고 성적 방출은 필수적이라는 가치관(김영희, 1998)은 가정에서 혼외관계에 관한 갈등과 스트레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혼외관계에 대한 아내의 대처 행동

대처행동을 Bell(1977)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상태를 유지하고자 취하는 행동이라고 하였고, Pearlin(1978)은 정서적 부담이나 불안정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문제해결에 접근시키고 현실과 악을 도와 정서적 안정으로 복귀시켜 주는 행동이라 하였다.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성별에 따라 다른 대처행동을 보였는데, 중년기 부부를 연구한 김명자(1991)의 연구에서는 남편은 문제 중심적 대처를 보였고 아내는 감정억제나 인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민자(1992)는 주부는 문제분석적인 방법보다 사회적 지원인 친구, 친척, 이웃과 종교에 의지를 보였다. 송말희(1990)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합리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의 도움요청, 적극적 행동으로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김예숙(1995)은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한 아내들의 대처방법을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수용적 대처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여성들로서, 여성 자신의 소극적 성격과 '남자가 외도할 수도 있지' 식의 남편의 태도를 갖는다. 그들의 대표적인 대처 행동은 언쟁을 피하기, 침묵하기, 현실을 부인하기 등을 사용하였다. 한편, 양유성(2008)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혹은 남편의 재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경우 의심이 가지만 말하지 않은 채 남편을 그냥 놔둔다고 하였다. 이런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나 등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으면서 현실을 부인하고 피하며 몇 년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보내기도 한다.

그 다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이다. 문정숙과 이정화(1997)의 사례에서 보면 이런 유형의 대처행동은 이혼요구, 혼외관계의 종결 강요, 상대여성을 만나 추궁하거나 설득한다. 이혼을 의도하지 않지만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단단히 혼내 주거나 망신을 시켜주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이런 유형의 아내들은 적극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그동안의 부부관계의 특성에서 나오는 경향도 있다(김예숙, 1995).

마지막으로 수용적인 대처행동이다. 여성이 남편을 이해하려는 태도인데, 남편의 혼외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가능한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김예숙, 1995). 즉, 아내로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기도 하고 남편의 혼외관계를 수용하려고 애쓰는 경우이다.

남편의 혼외관계가 아내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혼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의 혼외관계로 아내들은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혼외관계로 이혼한 사람들의 80%가 나중에 그들의 결정을 후회했고, 오랜 기간 배우자에 대한 미련과 정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aheli, 1997).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 접근방법

본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 중 Straus와 Corbin(2001)의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남편의 혼외관계가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아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아내들의 인식, 행동, 남편과의 상호작용과 대처전략과 그 과정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적응해가는 아내들의 경험과정을 분석하여 분석적 구조를 생성하고 그를 통해 실체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거이론의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참여자 선정은 앞서 언급한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남편의 혼외관계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과 접촉하였다. 그 다음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각 참여자와의 면담결과와 다른 상황이나 사건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즉, 남편이 성교행위를 동반한 혼외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건강한 부부관계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35세 이상 55세 미만 아내들을 표집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혼외관계 경험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적응과정과 경험이 달라질 것을 고려하여 혼외관계가 종결된 경우 혼외관계의 경험을 최근 5년 이내 최소 6개월 경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엄밀성을 위하여 일관성과 중립성을 통해 연구의 질을 관리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이란 양적연구에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Guba와 Lincoln(1981)은 일관성 대신에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제안하였다. 즉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고 다른 연구자도 연구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여 객관적으로 타 연구자가 실험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립성(neutrality)이란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과 결과도출과정 중에 연구자의 편협된 사고, 시각으로 인한 영향력을 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러

기 위해 본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에 앞서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과 면담을 하여 그들의 경험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인터넷자료, 영화 또는 드라마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연구를 위한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일관성과 중립성 과정에 대한 감수를 위해 각 단계에서 나온 과정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족학 관련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재직 중인 상담 교수 2인과 연구원 1인에게 자문을 받아 개념의 명명, 범주화의 과정, 통합과정, 결과에 대한 감수를 받았고, 그들과 어휘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협의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 10명으로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5.5세이고 남편의 평균 연령은 48.7세이다. 참여자들은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신분 특히 남편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여 기록 자체를 선뜻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분류를 하지 않고 유, 무로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직업은 주부가 6명으로, 직업이 없음으로 표기 하였으나, <참여자 8>과 <참여자 9>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남편의 일을 도와주거나, 파트타임의 일을 가끔씩 하고 있었다.

학력은 대졸이 3명, 고졸이 5명, 중졸이 2명이었고, 소득수준은 본인이 인식하는 생활수준으로 참여자 대부분이 중간수준으로 인식하였으나, <참여자 4>, <참여자 6>, <참여자 8>은 남편의 도박, 유흥비 등으로 경제 상태가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번호	본인 연령	남편 연령	본인직업 (유무)	남편직업 (유무)	학력	소득 수준	결혼 기간	최초발생 (결혼후)	지속 기간	결혼 유형	자녀수 (연령)	지속 유무
1	45	48	유	유	대졸	중상	16년	10년	6년	절충	2남(15,16)	유
2	51	53	유	유	고졸	중중	21년	1년	17년	연애	1녀(21) 1남(19)	무
3	55	53	무	유	고졸	중중	30년	28년	1.5년	연애	1남(30)	무
4	40	40	무	유	중졸	하	6년	결혼직후	6년	연애	2남(8, 5)	유
5	35	42	유	유	고졸	중중	11년	4년	4년	연애	1남(11) 1녀(7)	무
6	46	52	유	무	중졸	하	26년	결혼직후	26년	연애	2남(24, 23) 1녀(26)	유
7	46	54	무	유	고졸	하	23년	15년	8년	연애	2남(21, 17)	유
8	52	54	무	유	대졸	중중	23년	결혼직후	23년	절충	3남(22, 20, 17)	유
9	44	51	무	유	고졸	중중	17년	2년	15년	중매	1남(17)	무
10	40	40	무	유	대졸	중중	13년	결혼직후	13년	연애	2남(13, 9)	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18.6년이었다. 남편의 최초 혼외관계는 결혼직후 시작된 사람부터 결혼 28년이 지난 후 관계를 갖은 경우까지 다양하였고, 결혼 유형은 참여자들의 7명이 연애 혼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모두 자녀가 있었고,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9>, <참여자 10>은 자녀들 모두가 미성년이었다. 남편의 혼외관계 지속 유무는 응답자의 4명이 혼외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1. 개방코딩 : 근거자료의 범주화

<표 2>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속성/차원	패러다임
흔전성관계로 결혼함(참여자 4, 6, 7) 후회를 남긴 선택(참여자 1, 3, 5, 8, 9) 부전자전(참여자 5) 결혼 전부터 엇보임(참여자 4, 7, 8)	어쩔 수 없이 결혼함 혼외관계 가능성 탐지	선택은 배우자 선택	관심정도 많음↔적음	원인적 조건
평상시와 다른 행동 (참여자 1, 2, 3, 5, 7, 9) 잡은 외박과 늦은 귀가(참여자 3, 4) 비밀이 생김(참여자 3, 4, 5, 10)	의심쩍은 행동의 출현	부부관계	열정정도 강함↔약함	
남편만 의지함(참여자 1, 3) 남 부럽지 않음(참여자 2, 3) 먹고 살기에만 전념함(참여자 3, 4, 6) 애정없는 부부관계(참여자 4, 6, 8) 성격이 맞지 않음(참여자 1, 6, 7)	원만한 부부관계 소원한 부부관계			
신체화증상의 출현 (참여자 1, 3, 4, 5, 7, 8, 9, 10) '화'가 치밀어 오름 (참여자 2, 4, 6, 7, 9, 10) 배신감을 경험함 (참여자 1, 3, 7, 8, 9, 10)	분노와 충격	남떠러지로 떨어짐	강도 강함↔약함 지속기간 장기↔단기	중심 현상
남편의 폭력, 폭언과 구박 (참여자 1, 2, 4, 6, 7, 8, 10) 증폭되는 의심(참여자 1, 3, 5, 7, 9, 10) 시댁과의 갈등(참여자 1, 4, 5, 7, 8, 10)	갈등의 표출			
삶이 바보 같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함 (참여자 1, 3, 4, 6, 8, 9) 자포자기함(참여자 3, 5, 6, 9) 주변인을 회피함(참여자 8, 10) 술로 위로함(참여자 1, 9, 10)	위축			
사업부도, 도박, 카드 빚에 어려움 (참여자 2, 5, 6, 7, 8) 경제관념이 희박함(참여자 2, 4, 6, 8, 9) 생활의 불안정(참여자 1, 2, 4, 5, 6, 9)	불안정한 생활			

<표 2> 근거자료의 범주화 -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속성/차원	패러다임
남편의 보상적인 행동과 노력 (참여자 2, 3, 5, 6, 9, 10) 남편의 반성, 후회(참여자 2, 3, 9) 자녀와 갈등(참여자 1, 2, 5, 6, 7, 8) 이혼에는 소극적 (참여자 1, 3, 4, 5, 6, 7, 8, 10) 회피함(참여자 1, 3, 4, 5, 8)	남편의 노력	남편의 태도	정도 긍정적↔부정적	맥락적 조건
드러내놓고 혼외관계를 갖음 (참여자 1, 2, 4, 7, 8, 10) 성적 탐닉형 혼외관계 (참여자 6, 8, 8, 10) 증폭되는 비밀과 은밀한 행동 (참여자 1, 2, 5, 6, 7, 9, 10)	혼외관계의 계속			
아내 탓으로 돌림(참여자 1, 2, 3, 7, 10) 변명함(참여자 3, 4, 5, 7, 9)	책임전가			
이혼 결정에 융통성을 가짐 (참여자 1, 3, 4, 5, 6) 불리한 여건으로 어려움(참여자 1, 3, 7)	주체적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태도 수용↔비수용	
종교적 의미에서 부정(참여자 2, 8) 이혼 후 사회적 인식이 두려움 (참여자 4, 8, 10) 이혼을 반대함(참여자 2, 7, 8, 9)	부정적 태도			
위로와 힘이 되어준 가족 (참여자 1, 2, 3, 5, 6, 8, 9, 10) 용서와 인내를 권함(참여자 5, 7) 친정식구에게 죄송함(참여자 1, 8, 9) 이혼을 권유함(참여자 6, 8, 10) 지지지원 부족(참여자 4, 5, 7, 8, 10)	가족 체계	지지체계	정도 많다↔적다	중재적 조건
주변사람들이 도움을 줌 (참여자 1, 2, 3, 8, 9, 10) 숨기고 비밀로 함(참여자 1, 2, 5) 혼외관계에 노출된 환경 (참여자 1, 2, 3, 7, 10)	사회 체계			
좋았던 시절 그리워 함 (참여자 3, 5, 7) 외도종결 후 관계회복을 희망함 (참여자 3, 4, 9) 좋은 점이 많은 남편 (참여자 1, 3, 5, 9, 10) 결혼생활이 지긋지긋함 (참여자 4, 6, 7, 8)	양가감정	결혼생활의 정서	정서 긍정적↔부정적	중재적 조건
상대여성에 대한 감정 (참여자 1, 2, 3, 5, 7, 8, 9, 10)	상대여 인식	혼외관계의 인식	통제력 있다↔없다	
남자의 본능 (참여자 1, 2, 3, 9) 남편의 혼외관계 종결의지 없음 (참여자 1, 3, 7, 8, 10) 내 노력으로는 종결되지 않음 (참여자 2, 3, 4, 6, 10) 또 하나의 사랑(참여자 1, 5, 9, 10)	혼외관계에 대한 인정과 포기			

<표 2> 근거자료의 범주화 -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속성/차원	패러다임
혼외관계 증거 및 정보 수집 (참여자 6, 7, 8, 10) 남편에게 협박함(참여자 1, 2, 3, 5) 상대여성과 접촉함 (참여자 1, 2, 5, 7, 8, 9, 10)	적극적 강요	확인	정도 적극적↔소극적	작용/상호 작용 전략
남편의 혼외관계를 늦게 알게 됨 (참여자 1, 7, 9, 10) 이혼을 일찍 결정하지 못함 (참여자 1, 3, 4, 5, 6, 8) 혼외관계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함 (참여자 1, 3, 7)	소극적 행동			
관심을 접고 포기함 (참여자 1, 3, 4, 5, 6, 7, 8, 9, 10) 사랑의 다른 대상을 원함 (참여자 1, 9, 10)	마음접기	육체적, 정서적 단절	정도 적극적↔소극적	
형식적인 아내, 며느리 역할 (참여자 1, 4, 5, 10) 성관계를 거부함(참여자 1, 2, 5, 7, 9) 신체적 접촉을 거부함 (참여자 5, 6, 7, 9) 별거, 가출함(참여자 4, 6, 10)	역할중단함			
자녀를 책임짐(참여자 1, 9, 10) 부모 역할 수행(참여자 4, 5, 8)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희생함 (참여자 1, 3, 6, 7, 8)	자녀와의 관계	현실적인 대처방안 마련	정도 적극적↔소극적	
이혼을 위한 자료의 준비 (참여자 6, 7, 10) 혼자서 감당하기의 어려움 (참여자 1, 4, 5, 6) 홀로서기를 준비함 (참여자 1, 3, 4, 5, 6, 7)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함 (참여자 2, 4, 5, 8, 9)	현실보기			
나보다 힘든 이웃을 돌아봄 (참여자 2, 4, 8, 9) 일에 전념함 (참여자 1, 4, 5) 새로운 관계망 구축하기 (1, 3, 7, 8, 9, 10) 잘 커준 자녀가 고마움 (참여자 2, 3, 5, 6, 7, 8, 9)	외적 자원 체계 활용	대처 자원 활용	정도 적극적↔소극적	
종교생활로 위안 받기 (참여자 2, 3, 8, 9)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찾기 (참여자 1, 5, 6, 7, 9) 고난에 대한 의미 발견 (참여자 1, 2, 3, 5, 8, 9)	내적 자원 체계 활용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함 (참여자 1, 4, 6, 8, 10)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 (참여자 3, 5, 9)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함 (참여자 1, 2, 3, 4, 5, 8, 9)	결혼생활의 변화	새로운 선택	정도 적극적↔소극적	
남편과 분화된 주도적 삶을 원함 (참여자 1, 4, 5, 6, 10) 아내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음 (참여자 1, 2, 9)	자아 성찰			

<표 2> 근거자료의 범주화 -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속성/차원	패러다임
용서와 불신이 남아있음 (참여자 2, 3, 4, 5, 6, 7, 9) 이혼과 인내로 갈등함 (참여자 1, 5, 6, 7, 8)	감정이 남음	미해결	정도 강함↔약함	결과
현재의 상황을 편안해 함 (참여자 5, 6, 8, 9) 참고 인내한 자신이 자랑스러움 (참여자 2, 8, 9) 앞으로의 삶을 소망함 (참여자 3, 6, 9, 10)	벗어남	수용	태도 적극적↔소극적	
급하지 않게 꾸준히 노력함 (참여자 2, 3, 9) 종교적인 삶으로 노력함 (참여자 2, 8, 9)	노력하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 주길 바램 (참여자 4, 5, 6, 7) 형식적인 부부로 남기 (참여자 1, 4, 5, 6, 8, 10) 자녀들의 부모로만 남기 (참여자 1, 4, 5, 6, 10)	체념하기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절차를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 시켰다<표 2>. 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97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들을 통합한 34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한층 추가시킨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2. 축코딩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의 선에 따라 발전시킨다. 속성은 범주의 특성이고 차원은 연속선상에서 속성의 위치를 나타낸다. 범주들은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고 또한 패러다임을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해 더 자세하고 완벽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원인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간의 관련성으로 도식화 [그림 1]하였다. 이 모형에 의한 범주분석은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의 중심현상과 적응과정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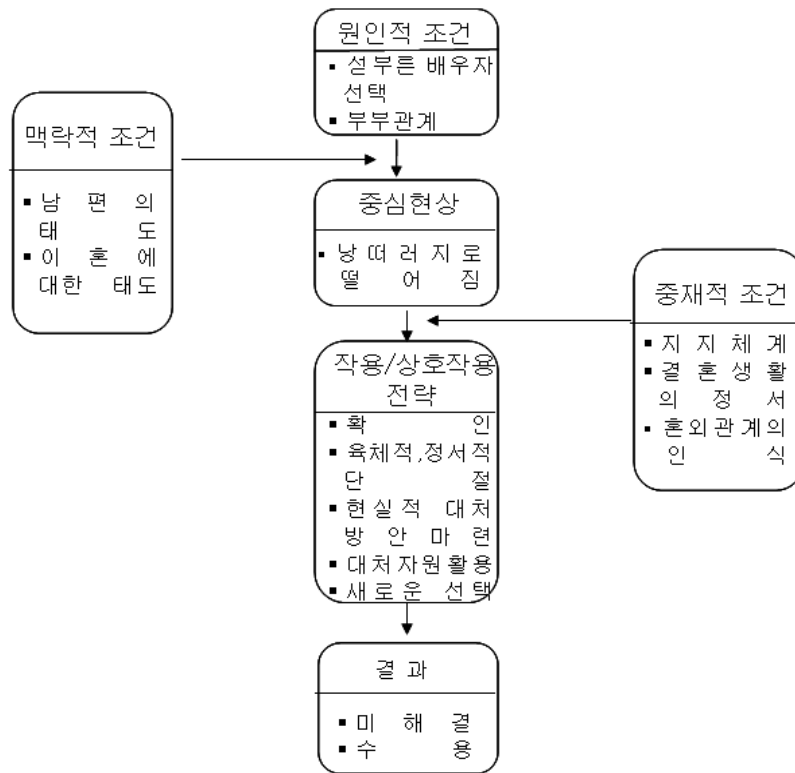
2) 적응과정 분석

본 연구는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한 아내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의 적응과정 단계는 확인기, 단절기, 정립기, 성찰기의 4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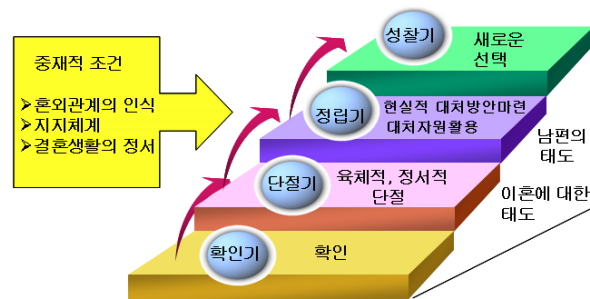
(1) 확인기

확인기는 참여자가 남편의 혼외관계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종결을 시도해 보려는 첫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혼외관계의 종결을 강요하거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양상은 확인기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관계종결을 남편과 상대여성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만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참여자들은 남편의 혼외관계를 알지만 묵인하고 인내 밖에는 다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소극적 행동은 남편의 폭력과 폭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무기력감이었다. 일부 참여자는 설마하고 남편의 혼외관계를 눈치 채지 못해서 뒤늦게



[그림 1]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의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그림 2]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의 적응과정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단절기

단절기에 참여자들이 보여준 주된 행동양상은 아내로서 육체적·정서적 단절이었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단절하였다. 남편의 혼외관계 속에서 물리적 공간 분리 및 육체적 단절과 정서적 단절을 시도하였다.

물리적 공간 분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혼외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되자, 참여자 자신이 직접 집을 며칠 동안 나가 있거나, 남편에게 집을 나갈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함께 방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별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남편

의 혼외관계는 종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다른 대상과 관계 맺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편과 단절관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정서적 단절로 나타난 참여자들의 경험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한계상황에 봉착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체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꿈꿔보거나,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서서히 남편과 정서적 단절을 경험해 나가는 것으로 서술될 수 있다.

한편, 결혼생활의 정서와 남편의 태도에 따라 단절기의 기간은 달라졌다. 그동안 결혼생활이 나름대로 행복했다

고 지각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경우, 진심어린 남편의 반성과 후회,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다시 희망하고 관계회복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참여자들은 단절기를 비교적 짧게 철회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전략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3) 정립기

정립기는 참여자들이 다시금 살아보려는 의지를 갖고 현 상황을 정립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 남편의 역할 부재를 대신해 부모로서의 역할정립, 가장으로서의 역할정립과 더불어 참여자가 현재의 고통을 잊고 다시 생활해 나갈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찾고 활용하는 시기이다.

정립기에 참여자는 현실을 고려해 보았다. 현실에 대한 고려는 현실을 관조하는 입장으로 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려, 만약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 이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적응전략은 첫 번째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의 부재에 대해 역할정립을 해 나갔다. 먼저, 참여자들은 남편의 무책임한 생활태도, 생활 무능력, 남편의 폭력과 부부갈등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 버린 가정을 살펴보고, 부모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자녀를 위해 부모의 역할을 정립해 나아갔다.

두 번째 적응전략은 참여자들은 상황을 정립한 후 대처자원을 활용하였다. 활용하는 대처자원 중 외적자원으로는 주변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었고, 내적자원으로는 종교생활, 운동, 산책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4) 성찰기

성찰기는 남편의 혼외관계 후 아내 스스로 적응해 나아가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립한 후 자아성찰을 하고 앞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선택의 단계이다.

성찰기에 이루어지는 자아성찰은 그동안 아내로서, 한 여성으로서 살아온 자신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맘에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남편 혼외관계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복지를 신중히 고려하였다. 혼외관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의 결혼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무엇이 자녀와 본인을 위한 삶인지를 성찰하는 시기였다. 자신에 대한 성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아내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반성하였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들 참여자들은 그

동안 결혼생활 성찰을 통해 진실로 남편을 포용하고 관계를 더욱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선택코딩 : '남편의 혼외관계로 인한 아내의 적응과정'

1) 핵심범주 : '가슴애편을 경험한 후 현실을 포용함'

가슴애편 : 가슴이 쓰라리고 지독한 슬픔/ 가슴애편이

창자 어디에서부터 쥐어틀며 쓰라린 기운이 가슴으로 밀고 올라와 그러는 것이다. 백반을 물고 있는 것만큼이나 시고 뚝뚝 침이 금방 한 모금 이 된다. 마땅하게 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삼키면 살 속에 생채기가 난 듯 쓰리며 켠겼다. 바늘로 속을 긁어내는 것도 같았다. **가슴애편**. 이 쓰라리고 독한 슬픔.

- 최명희의 '혼불' 중에서

핵심범주는 그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며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모든 분석요소를 응축시킨 몇몇 단어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범주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핵심범주로 '가슴애편을 경험한 후 현실을 포용함'을 도출하였다.

'가슴애편'은 불덩이가 명치를 타고 올라 숨통을 조이는 심한 가슴애편을 가리키는 우리말로, 작가 최명희가 '혼불'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참여자들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정서를 표현한 말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상적인 '가슴애편'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용'(표준국어 대사전, 2008)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감쌌, 덮어줌을 의미한다.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의 적응과정은 가슴이 쓰라릴 정도의 지독한 슬픔을 경험한 후 이를 다시 감싸는 포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포용은 두 가지의 의미로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먼저, '포용'의 과정은 남편의 혼외관계를 용서하고 앞으로 더 나은 부부관계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포용'은 남편의 혼외관계 지속여부는 더 이상 아내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체념의 의미 즉, '덮어버림'의 의미로서 서술될 수 있다. '남편은 남편, 나는 나'라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형식상 아버지 역할에 만족할 뿐 본인에게 '남편'이라는 의미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2) '가슴앓이를 경험한 후 현실을 포용함'에 대한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 '가슴앓이를 경험한 후 현실을 포용함'의 과정은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의 사용에 따라 다른 결과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토대로 하여 다음의 <표 3>과 같이 분리 자유형, 경직 체념형, 연결 수용형, 혼돈 집착형의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유형들은 각각 적응성과 민감성이 중심 속성으로 도출되었는데, 남편의 혼외관계 후, 부부 상호작용의 패턴 변화 대처능력이 높으면 적응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응성은 낮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남편의 혼외관계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정도가 높으면 민감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감성은 낮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분리 자유형

이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은 높은 적응성과 낮은 민감성이 특징이다. 부부 상호작용 패턴 변화 능력이 높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정도가 낮은 유형이다.

이 유형 참여자들의 결혼생활 유지 태도는 소원해짐과 자유로워짐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남편의 혼외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자 남편에 쏟는 관심과 애정을 감소시켰고, 그러면서 남편의 혼외관계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짐

을 느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이혼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부부 상호작용 패턴양상은 참여자 스스로 아내로서 역할은 철화하고 부모로서 역할수행에만 의미를 두었고, 배우자에게도 남편으로서 역할보다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만을 기대하였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의 적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철화하였다. 다만 성적인 관계는 필요하다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갖기도 하였다. 언제든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준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로 원만한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녀의 학동기가 끝나고 본인이 혼자서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혼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남편의 혼외관계를 남편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부의 역할 즉, 생활비만 벌어들여 주면 된다 혹은 자녀의 아버지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적응방식을 취하는 데에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서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는 다른 점이다. 이들 참여자들에게 결혼생활이 지긋지긋한 삶은 아니었다. 남편은 혼외관계를 제외하면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였고, 그동안 부부관계도 원만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분리 자유형은 부부 상호작용패턴 변화능력으로 명명할 수 있는 적

<표 3> '가슴앓이를 경험한 후 현실을 포용함'의 유형

	범주(속성)	차원			
원인적 조건	선부른 배우자선택(관심정도)	중간	적다	중간	적다
	부부관계(열정정도)	중간	약함	중간	약함
중심현상	남떠러지로 떨어짐 (강도, 지속기간)	강함	중간	강함	강함
		장기적	장기적	중기적	장기적
핵심 범주	가슴앓이를 경험한 후 현실을 포용함(적응성,민감성)	적응성높음 민감성낮음	적응성낮음 민감성낮음	적응성높음 민감성높음	적응성낮음 민감성높음
맥락적 조건	남편의 태도(정도)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이혼에 대한태도(태도)	수용	비수용	비수용	수용
중재적 조건	지지체계(정도)	적다	적다	많다	적다
	결혼생활의 정서(정서) 혼외관계의 인식(통제력)	긍정적 없다	부정적 없다	긍정적 있다	부정적 없다
작용/상호작용전략	확인(정도)	소극적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육체적,정서적단절(정도)	적극적	중간	소극적	중간
	현실적인 대처방안 마련(정도)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대처자원활용(정도)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새로운 선택(정도)	소극적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결과	수용	미해결	수용	미해결
적응유형		분리 자유형	경직 체념형	연결 수용형	혼돈 집착형

응성은 높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정도라고 정의한 민감성은 낮은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참여자 1>, <참여자 5>, <참여자 10>의 경우가 해당되었다.

(2) 경직 체념형

이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은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낮고 부부 상호작용 패턴 변화능력은 낮은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즉, 낮은 민감성과 낮은 적응성으로 설명되어졌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고 자신의 의지를 말하지 못하고 남편을 그냥 내버려둔다. 분리 자유형과의 차이점은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변화를 피하기 때문에 부부 상호작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능력도 경직되어있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참여자들에게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삶의 무기력을 만들었고, 자녀는 커다란 지지체계이고 인내해야만 하는 의미를 주는 대상이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결혼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실을 극복하려하는 변화의지가 미약하였다. 계속된 폭력과 폭언, 삶의 궁핍에 대한 고통의 강도가 너무 크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과 유지가 이들 참여자들에게 삶의 관건이었다. 또한 이혼에 대한 태도가 비수용적이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본인이 희생을 해서라도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혼과정에서 자랐다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대상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맘이 강했다. 그러기에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미안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회유형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참여자 6>, <참여자 8>의 경우가 해당되었다.

(3) 연결 수용형

이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은 높은 민감성, 높은 적응성이다.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정도가 높고, 부부 상호작용 패턴 변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들 유형은 부부 상호작용 패턴 변화능력이 높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정도가 높아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전략이 적극적이었다.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비난하였고, 관계 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면서 결국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고 결혼생활과 결혼생활 유형, 아내로서 역할, 부부상호관계를 반성하고 돌아본 관조의 시간을 경험했다. 더불어 혼외관계 이후 남편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혼외관계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수용하였

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노력하는 남편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이 유형에서만 볼 수 있었다. 관계 정리를 아내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이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9>이다.

(4) 혼돈 집착형

이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은 민감성은 높고, 적응성은 낮은 유형이다. 즉,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정도가 높고, 부부 상호작용 패턴 변화능력은 낮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참여자는 남편에게 융합되어 있고 남편에 대한 관심정도가 강해 삶의 에너지가 오직 남편의 혼외관계에만 집중 되어있다. 이 유형의 행동양식은 결혼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낮아서 부부 상호작용 패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혼외관계의 확인과 증거수집, 물증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혼외관계 종결을 위한 아내의 대처전략은 적극적이었지만, 다양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려는 의지와 참여자를 도울 수 있는 대처자원이 미약하여 오직 혼외관계의 증거 확보를 통해서 남편에게 종결을 강요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통해 자아성찰을 하였고,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복지를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유형의 특징적 사례인 <참여자 7>과 <참여자 4>이었다.

V. 논의

본 연구결과 개방코딩과정에서 끊임없는 비교분석을 통해 98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통합하여 34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를 분석한 결과, 아내들의 적응과정의 원인적 조건은 '선택된 배우자 선택', '부부관계'였다. 처음부터 잘못된 배우자 선택의 과정과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가 원인적 조건이 되었다. 결혼 전부터 파악된 남편의 여성편력, 결혼 후 파악된 시부모(媳父)를 닮은 혼외관계의 성향, 남편과의 성격차이에서 비롯된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등은 원인적 조건이 되었다. 이것은 혼외관계의 원인으로 성격적 장애증상인 성중독증(이무석, 1999)과 남성우월주의에서 나온 가부장적 혼외관계(문영숙·이정화, 1997), 모델링에 의한 세대 간 전수된 혼외관계(양유성, 2002),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갈

등에 의한 혼외관계(이영숙 등, 2000)가 적용됨을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혼전 성관계와 혼전임신은 참여자들이 배우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주요 원인 이었다. 이런 상황들로 참여자들은 심사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Reiss(1980)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거나 혼전성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혼외성관계를 많이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혼전성경험은 성에 대한 허용성을 높이고, 성적 배타성과 같은 결혼 본연의 특성을 내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장휘숙(2008)도 이런 가치관과 태도가 결혼 후에도 쉽게 혼외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의 참여자들이(참여자 4, 6, 7, 10) 혼전성경험이 있었고, 임신하였기 때문에 결혼으로 떠밀린 경우가 많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결혼준비교육과정에서 배우자 선택 시 신중성, 성적 결정에 주체성 등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중심현상은 '남떠러지로 떨어짐'이었다. 남편의 혼외관계로 참여자들은 분노와 충격을 경험하였고, 부부관계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 자존감 하락,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하였다. Meldrim(2005)은 남편의 혼외관계의 충격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PTSD)로 분류하여 정서적, 육체적 충격의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대처전략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남편의 혼외관계의 충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한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혼외관계를 개인만의 노력으로 극복하도록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가족 상담치료의 전략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의 중심현상을 이끄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확인', '육체적·정서적 단절', '현실적인 대처방안 마련하기', '대처자원 활용', '새로운 선택'이었다.

David(1985)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남성은 문제 중심적, 인지적 행동을 취한다고 하였고, 여성은 수동적, 정서적, 종교에 의지, 도움추구, 회피의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태련(2006)은 문제해결에 중심을 둔 대처가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남편의 혼외관계 상황을 적응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남편의 혼외관계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참여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부

족과 미약한 경제력, 부부관계 변화의 소극적 태도, 남편의 폭력과 폭언과 같은 남편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현실상황을 정립하고 혼자서 남편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남편의 혼외관계를 잊을 수 있는 나름의 일을 찾아갔다.

한편, '남떠러지로 떨어짐'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은 '남편의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였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이끌고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으로는 '지지체계', '결혼생활의 정서', '혼외관계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들을 통해 남편의 혼외관계 이후 아내의 적응과정은 '확인기', '단절기', '정립기', '성찰기'의 과정을 거쳤다. '확인기'의 과정은 남편의 혼외관계 종결 유무를 계속 확인하고 종결되도록 대처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양유성(2008)은 남편의 거짓말이 혼외관계를 중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결혼생활을 잃게 될 위험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남편들 모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가정생활의 해체는 희망하지 않고 있었다. 남성들이 혼외관계를 하면서도 가정을 지키는 이유는 대개 아내들은 아내이기에 자기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참고 살아 준다고 생각하고, 바깥에서는 다른 여성과 즐기지만 자기 아내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깊은 유대감이나 안정감을 갖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양유성, 2008). 많은 문헌에서도 혼외관계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문영숙·이정화, 1997; 배연정, 2004; 송강희, 2006) 남성들이 자신의 혼외관계와 결혼의 성적 독점성을 별개로 사고한다는 성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편의 솔직한 혼외관계 인정과 고백은 참여자들에게 혼외관계의 충격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혼의 질 역시 향상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Vikler(1997)는 남편의 혼외관계를 알게 된 아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척 해주고 위기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묵인해 주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혼외관계를 알게 되면 곧바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곧바로 대면하기를 피하다보면, 남편은 죄책감과 불안감에서 익숙해지게 되었고, 혼외관계의 지속기간도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칫 이런 눈감아주기가 상습적인 남편의 혼외관계를 낳게 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단절기'에는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에 대한 반항의 표시이고, 남편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

다. 참여자들은 남편을 신체적으로 불결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이영숙 등(2000)은 남편의 혼외관계로 부부 상호간의 친밀감 상실은 성적 접촉의 기회 감소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단절기’ 시기에 육체적, 성적인 접촉을 단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강요하는 남편에게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내들에게 성은 본인이 가치 있게 여겨짐과 존중된다는 느낌뿐 아니라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양유성, 2008).

‘정립기’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정립해 봄으로서 진정한 자신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아이는 나에게 있어 유일한 꼬나풀이지요’라고 말한 한 참여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존재가 결혼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매개가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거나 앞으로 삶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정립기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녀의 행복이 우선순위로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성찰기’를 경험하는데 자신과 결혼생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하나의 주체적 자아로서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혼외관계에서 충격에서 회복되는데 혼외관계의 시작에서 끝낸 시간만큼 배우자도 회복기간이 걸린다고 하였다(Carder, 1995).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혼외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대처하면서 건강한 자아를 위한 심리 내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은 혼외관계 후 적응과 치유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택코딩에 의해 핵심범주인 ‘가슴앓이를 경험한 후 현실을 포용함’을 도출하였다. ‘포용함’의 결과는 남편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여 ‘덮어줌’의 의미도 있었지만, 남편을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현실을 적응해 나가는 ‘덮어버림’의 의미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남편의 혼외관계 이후 결혼생활에 대한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결혼생활이 회복된 경우도 있어 진정한 의미의 포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의 혼외관계가 종결되지 않을 때 허탈함을 경험하고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들에게 있어 결혼생활유지는 체념의 의미였다. 이들에게 이혼을 하느냐 혹은 결혼생활을 지속하느냐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다. 단지 자녀에게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오점을 주지 않고,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포용은 일종의 덮어

버림인 것이다. 이들에게 부부관계의 회복은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다.

선택코딩을 거쳐 도출된 핵심범주를 토대로 가설에 대한 정형화를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부부 상호작용의 패턴 변화능력의 높고 낮음으로 정의되는 ‘적응성’과 남편에 대한 애정과 관심정도의 높고 낮음으로 정의되는 ‘민감성’을 양측으로 하여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리하였다. 유형은 ‘분리 자유형’, ‘연결 수용형’, ‘경직 체념형’, ‘혼돈 집착형’으로 분류되었고, 참여자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결과는 ‘수용’과 ‘미해결’로 정의되었다.

남편의 혼외관계의 적응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혼외관계라는 갑작스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부부관계 변화능력과 배우자와의 애정과 관심정도를 통해서 적응유형을 분류하였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이다. 이러한 적응 유형은 ‘수용’의 결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자포자기식의 의존적인 관계나 적합한 대처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체념의 상태는 ‘미해결’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Lamanna 와 Reidmann(1988)은 이러한 관계 맺는 양식을 사랑과 자존감으로 연결하고 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각각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자족적이면서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서로 생각이나 감정의 교류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는 독립적 관계(independent)를 맺거나, 둘을 하나라고 여기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dependent)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VI. 제언

본 연구는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이혼하지 않은 아내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남편의 혼외관계라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한 후 아내들의 적응과정을 참여자인 아내들의 언어로서 표현되어 있다. 즉,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감정,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한 원인, 참여자 자신들의 노력이 참여자들의 경험의 틀 속에서 표현되어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관점에서 사실이 기술 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입장에서만

변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상호작용은 참여자의 추측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남편의 입장에서 보는 결혼생활중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혼외관계의 인식, 그리고 결혼생활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남편과 아내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혼외관계를 경험한 후 부부관계의 변화와 결혼생활의 역동 및 적응과정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이 첨가된 질적, 양적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의 부부관계 적응유형이 네 가지로 분류되었으나 각각의 유형들의 적응과정과 그 특성들만 분류되었다는 것에서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유형분류에 영향을 미친 상황적 조건들이 각각의 유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분류된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부부관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천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형별 특성에 맞는 필요한 지지자원과 사회적 지원책에 대한 연구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은 남편의 혼외관계를 종결시키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와 평가, 추측만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개인의 감정에만 치우쳐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주변의 지지체계는 인내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참여자들은 대처와 극복을 위한 정보부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편의 혼외관계를 종결시키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적응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친밀감 향상을 위한 성 프로그램 등 혼외관계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의 보급과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들의 적응유형이 부부관계의 변화능력과 남편에 대한 관심정도를 통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류된 적응유형은 개인의 소득수준, 학력, 연령, 혼외관계지속기간, 지속유무 등의 변인에 따라 적응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해 남편의 혼외관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의 연령이 35세에서 55세까지였고 자녀들도 학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부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부부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밝혀졌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의 혼외관계라는 가족 스트레스 상황이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와 함께 부부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참여자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한 아내의 적응과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혼외관계, 아내의 적응과정, 근거이론

참 고 문 헌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한국생활과학회지*, 5(2), 53-72
- 김예숙(1995).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서울: 형성사.
- 배연정(2004). TV드라마에 나타난 부부관계 분석-외도상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강희(2007). *내 남자가 바람났다*. 서울: 한스미디어.
- 송명희, 여성연구회(2003). *우리 이혼할까요?*. 서울: 푸른사상사.
- 양유성(2006). 남성의 위기-21세기 한국남성과 가족치료. 제 22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5-67.
- 양유성(2008). *외도의 심리와 상담*. 서울: 학지사
- 이무석(1999). 혼외정사: 정신분석적,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 *신경정신의학*, 38(2) 241-249.
-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2000).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신정문영숙, 이정화(1997). *남자는 왜 바람을 피우는가*. 서울: 지성사.
- 장휘숙(2008). *가족 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숙이(2003).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을 위한 목회상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자(1992). 임상, 정상 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정혜정(1999). 아내학대에 대한 적응의 영향 변인 - Double ABCX모형을 기초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107-122.
- 최규련(2007). *가족관계론*. 경기도 고양시: 공동체
- 최연실(2006). 혼외관계의 내적 역동과 치료적 함의-노출 이후의 정서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1), 81-100.
- Charney, I., & Parnass, S.(1995). The impact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on the Continuation of marriage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1,

- 100-115
- Edell, R.(1995). *How to save your marriage from an affair : Seven steps to rebuilding broken trust*. Kensington Book.
- Lumanna, M. A., & Riedmann, A.(1988). *Marriage and families: Making choices and facing change*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
- Lusterman, Don-David.(2004). 외도 그후.... (*Infidelity: A Survival Guide*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노혜숙 역. 서울: 푸른 숲(원전은 1998에 출판)
- McGinnis, T.(1981). *More than just a friends : The joy and disappointments of extramarital affairs*. prentice-Hall, Inc.
- McCubbin, H. I., Patterson, J., & Wilson, L. R.(1983). Family transition: Adaption to stress. In H. I. McCubbin & C. R. Figley(Eds.), *Stress and the family, 1, Coping with normative transitions*. NY: Brunner/Mazel.
- Medrim, H.(2005). Impact of infidelity on the offended spouse : A study of gender difference and coping strategies in a religio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of New York, USA.
- Pittman, F.(1989). *Private Lies. Infidelity and the Betrayal of intimacy*. New York: Norton.
- Pittman, F. & Wager, T. P.(1995). *Crises of infidelity*.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ew York : Guilford press.
- Reibstein, J., Richard, M.(1992). *Sexual arrangements : Marriage and affairs*. William Heinemann Ltd.
- Staheli, L.(1997). *Affair-proof your Marriage* New York; Cliff Street Books.
- Strauss, A. & Corbin. J.(1996). 근거이론의 이해.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 신경림 역(2008). 서울: 한울아카데미
- Strauss, A. & Corbin. J.(2001)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Spanier, G. B., & Margolis, R.(1983) : Marital separation and extramarital sexual behavior. *Journal of Sex Research, 19*, 23-48.
- Subotnik, R., & Harris, G.(1993). *Surviving infidelity - Making Decisions, Recovering from the Pain*. Chicago: Adams Media Corporation.
- Thabes, V.(1997). A survey analysis of woman's long-term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7*, 163-175.
- Vikler, H. A.,(1997). 외도상담. (*Broken Promises*). 김의식 역. 서울: 두란노
- Weiner, M. B., & Starr, B. D.(1989). *Stalemates. The truth about extramarital affairs*. New York: New Horizon Press.
- Weiner, M. B., & Dimele, A.(1998). *Repairing your marriage/ After his affair : A woman's guide to hope and healing*. CA: Prima publishing.
- Young, M. E., & Long, L. L.(2003). 부부상담과 치료.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이정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98출판).
- 가정폭력외도 실태분석(2001. 11. 12). 한겨레신문, 자료출처.
-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1/11/005100032200111121837031.html>
- 표준국어 대사전(2008).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2009. 2. 4 접수; 2009. 5. 11 채택)